

아름다운 섬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만든 풍경화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통영 옥지도 둘레길

통영 당포항을 출발한 여객선이 미끄러지듯 바다를 달려간다. 주변은 수많은 섬으로 다도해를 이뤘다. 멀리 옥지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옥지도에 가까워지면서 옥지도 주변의 상노대도·하노대도와 연화도·우도는 물론 수많은 무인도들이 1시간 가까이 바닷길을 달려온 관광객을 맞이한다.

북동쪽으로 만(灣)을 이루고 있는 옥지도는 만 안쪽에 옥지도항과 마을이 자리했다. 통영에서는 한산도 다음으로 큰 섬인 옥지도는 옥지면이라는 행정구역으로 10개의 유인도와 146개 무인도를 아우르고 있다. 옥지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해안 어업전진 기지로 파시를 이뤘다.

옥지도항에 도착한 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일출봉 등산로 입구가 있는 아포마을로 향했다. 포근한 만을 이룬 해안도로를 따라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일출봉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다. 산길로 접어들니 고요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상쾌하다. 일출봉 8부 능선에 있는 바위지대에 들어서자 옥지도와 주변 바다가 예쁘게 바라보인다.

일출봉(201m)에 도착하니 옥지도와 어울린 바다 풍경이 더 넓고 아름답게 펼쳐진다. 일출봉에서 바라본 옥지도는 곡선을 이룬 산줄기와 섬을 둘러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섬 안쪽으로 파고든 포근한 만이 아름답게 어울렸다.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은 옥지도 풍경화의 화룡점정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해준다. 일출봉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일출봉에서 완만한 능선을 따라 망대봉으로 향한다. 능선길에서 동쪽으로 전망이 트일 때면 옥지도의 부속섬 초도와 외초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북동쪽 바다에서는 연화도와 우도가 절경을 드러내준다. 기암절벽을 이루며 기늘고 길게 뻗어나간 연화도 용머리바위를 바라보며 자연의 신비에 감동한다. 연화도 뒤쪽 먼 바다에 떠있는 매물도와 소매물도까지도 조망된다.

망대봉(205m)에 도착하니 사각정자가 기다리고 있다. 망대봉 정자에 앉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풍경에 취한다. 상노대도와 하노대도는 옥지도 북쪽에 가깝게 떠 있고, 상노대도 북서쪽 바다에 두미도가 우뚝 서 있다. 사량도도 고개를 내밀고, 남해도까지도 희미하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준다. 옥지도 주변에는 연화도 우도 초도는 물론 상노대도·하노대도·두미도 같은 유인도를 비롯해 수많은 무인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옥지면을 이루고 있는 이들 섬을 '옥지군도'라 부른다.

망대봉에서 능선순길을 따라 내려와 일주도로를 만난다. 젓고닥이라는 고개로 주변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남동쪽 넓은 바다에는 좌사리제도도 있다. 내장덕도 불개도·좌사리도 등대섬 등 10개 가까운 작은 바위섬들이 에메랄드빛 바다위에 조각전시장을 만들어놓았다. 북서쪽으로는 옥지항이 있는 마을과 만, 천왕봉 약과봉 같은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젓고닥에서 잠시 도로를 따라 내려오니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도넛가게가 있다. 제1출렁다리는 도넛가게에서 바닷가로 200m를 내려가면 만날 수 있다. 경사지를 따라 내려가는데 반짝이는 운슬위에 작은 바위섬이 떠 있어 파스하게 느껴진다.

옥지도에 있는 세 개의 출렁다리 중 첫 번째인 제1출렁다리에 도착했다.



일출봉에서 바라본 옥지도는 곡선을 이룬 산줄기와 섬을 둘러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섬 안쪽으로 파고든 포근한 만이 아름답게 어울렸다.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은 옥지도 풍경화의 화룡점정이다.



망대봉으로 걷다보면 능선길에서 동쪽으로 전망이 트일 때면 초도와 외초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옥지도에 있는 세 개의 출렁다리 중 첫 번째인 제1출렁다리.



제3출렁다리는 거북바위라 불리는 바위에서 건너편 벼랑으로 놓인 출렁다리다.

이의 기암절벽을 이루며 병풍처럼 펼쳐진다. 기암괴석은 한 발짝 바다로 튀어나가 동섬이라 불리는 바위섬을 만들기도 했다. 동섬은 또 하나의 바위를 분가시켜 솟불이 떠오르는 것 같은 솟대바위를 솟구쳤다.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절벽과 동섬, 솟대바위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 풍경미의 극치를 이뤘다. 자연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예술가다.

펠리칸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쪽풍경 또한 감탄을 자아낸다. 천왕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고도를 완전히 낮췄다가 184m 높이의 작은 봉우리를 솟구치고는 바다로 스며드는 모습이 드라마틱하다. 옥지도 최남단 184봉에는 유동등대가 서서 지나는 배의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동남쪽 망망대해에 울망줄망 떠 있는 좌사리제도는 드넓은 바다의 재물쟁이다.

제1출렁다리를 건너 제2출렁다리로 가는 길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걷는 비렁길이다. 드넓은 바다는 깊이와 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푸른색을 띠고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과 망망대해가 누가 더 푸르냐 경쟁을 한다. 시선이 끝나는 곳에서 하늘과 바다가 만난다.

비렁길 아래에서는 해안바위와 부딪친 파도가 하얀 물보라를 만들며 솟구친다. 해안바위 위로 난 비렁길을 걷다보니 갈로 도려낸 것 같은 높은 벼랑 사이로 바닷물이 드나든다. 거의 수직을 이룬 두 바위의 틈은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바위를 고래강정이라 부르는데, 강정은 벼랑의 이 지역 방언이다.

고래강정을 지나 옥지도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개미목에 도착하니 제2출렁다리가 기다리고 있다. 개미목 동쪽에는 작은 섬 옥섬이 있고, 서쪽으로는 삼여도와 유동등대가 바라보인다. 제2출렁다리에서 멀리



제1출렁다리를 건너 제2출렁다리로 가는 길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걷는 비렁길이다.



펠리칸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본 동쪽풍경은 해금강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않은 곳에 제3출렁다리가 있다. 거북바위라 불리는 바위에서 건너편으로 출렁다리가 놓여있다. 제3출렁다리에서는 유동등대 쪽 해안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제3출렁다리에서 데크계단을 따라 올라가 옥지도 일주도로를 만난다. 옥지도일주도로는 섬을 한 바퀴 도는 코스로 24km에 이른다.

일주도로 삼거리에서 옥지도항을 내려다보며 대기봉 동쪽 산비탈을 돌아가는 임도를 따른다. 임도에서 마을골목길을 따라 해변으로 내려선다. 옥지항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배에 오른다. 옥지도와 주변 섬들이 배웅을 해준다. 옥지도가 점점 멀어지고, 섬은 내 마음 속의 그리움으로 남겨진다. <장갑수·여행작가>



망대봉으로 가는 길에 바라본 연화도. 뒤쪽 먼 바다에 떠있는 매물도와 소매물도까지도 조망된다.

※여행특기 ▲옥지도는 통영에서 가장 남쪽바다에 있는 유인도로, 주변에 156개의 크고 작은 섬이 군도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일출봉에서는 보는 전경과 제1출렁다리 근처에서 보는 해안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코스 : 아포(등산로 입구)→일출봉→망대봉→젓고닥→제1출렁다리→제2출렁다리→제3출렁다리→일주도로→임도→저수지길→옥지항

※거리, 소요시간 : 10km, 4시간 소요

※옥지도 가는 배 타는 곳 : 통영항(1시간50분 소요), 당포항(55분 소요), 중화항(55분 소요)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